

‘한국 사회와 종교학’의 내일을 바라보며

[서평]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2017), 『한국 사회와 종교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67쪽.

권 용 란*

1. 서평에 앞서

서평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다소 망설였다. 왜냐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학문적 연륜이 깊은 선생님들의 옥고를 모아놓은 것이 ‘정년퇴임 기념논문집’인데, 어떻게 평할 수 있을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책의 머리말에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의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소개와 총평이 있어 부담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평을 쓰기로 한 이유는, 한 학자가 자신의 학문 여정에서 ‘정년퇴임’이라는 커다란 매듭을 짓는 그 마음에 서평으로나마 정서적으로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다방면의 논문들을 학술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머리말을 핑계 삼아 독후감 같은 서평을 써도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서평은 이 책의 구성과 의의를 밝히고, 이 책과는 다른 시각으로 논문들을 분류하여 각 논문들의 주제를 간략하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강사

게 소개하고자 한다.

2. 이 책의 구성과 ‘한국 종교학’

이 책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김종서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이다.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기획하고 편집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논문들을 모아놓은 본문을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이다. 본문 앞부분에 헌정사(vii), 김종서 교수 연보(x), 주요 저술(xiv), 머리말(xxxiii)이 있고, 본문(3면~563면), 그리고 편자 소개(564면)가 있다. 본문에는 총 19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제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 ‘종교사회학’에는 종교사회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한 연구들을 모았다. 6편의 논문, (안신) 「종교사회학과 종교현상학 관점의 가능성과 유용성」, (김재명) 「지구화 시대 ‘종교체계’ 개념의 의미와 한계」, (우혜란) 「글로벌 축제로서 헬러윈의 발전과정과 일본 및 한국의 사례」, (유광석) 「‘종교 없음’ 인구의 종교성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 (전명수) 「노인복지와 종교 기반 실버산업」, (배덕만) 「‘헬조선’과 ‘개독교’ 시대의 인문주의」가 실려 있다. 제2부 ‘한국 사회와 종교’에는 한국 사회의 종교 문제를 다룬 연구들로, 한국 정치와 종교 공동체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종교적 인물들의 세계관을 분석한 연구들을 모았다. 7편의 논문, (윤용복) 「한국 이슬람교 이해하기」, (유요한) 「한국 개신교의 장소 점유 전략」, (이유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신교의 태도」, (강은애) 「만해 한용운의 종교관과 한국 사회」, (김용환) 「유불회통의 동아시아 시민성 함양」, (삿사 미쓰아키) 「대종교 단군민족주의와 한국 종교 연구」, (허남린) 「기복(起復)과 조선 사회의 유교권력」이 실려 있다. 제3부 ‘종교학의 시선으로 학문하기’에는 종교학의 관점과 방법이 사회를 분석하

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 연구들을 모았다. 6편의 논문, (김영원) 「종교학 안에서 종교철학하기」, (최정화) 「두려운 낯섦(Das Unheimliche): 성스러움을 이해하는 키워드」, (성해영) 「프로이트와 융의 심층심리학과 무의식」, (안환기) 「육망의 문제에 대한 불교의 해석」, (임재규) 「유교 윤리에 있어서 선악의 문제」, (Sung Uk Lim) 「Exploring Deconstructive Postcolonial Criticism as a Liberating Method」가 실려 있다.

19편의 논문 제목만 보아도 다방면의 종교학 연구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사회학’, ‘한국 사회와 종교’, ‘종교학의 시선으로 학문하기’라는 세 범주의 표제만 보더라도 연구 범위가 광범위해 보인다. 한 범주씩 따로 떼어내어 한 권의 책으로 묶어도 될 정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 책의 기획의도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종교와 사회의 제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전통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 『한국 사회와 종교학』은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종교’와 ‘사회’를 전범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머리말 xxxiv면)는 기획의도는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의 연구 대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와 종교의 관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방증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종교와 사회’라는 범주의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반영하는 사안들을 다방면으로 다루어 종교와 사회가 빚어낸 인간 삶의 총제성과 복합성을 하나의 장에서 풀어보고자 한다.”(머리말 xxxiv면)는 내용을 통해서,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이 다방면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19편이 모두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인간의 총제적인 삶에 대한 숙고와 이해를 위한 통찰력으로 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의 기획의도에는 ‘한국 사회와 종교학’의 관계에 대한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종교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노력과 이정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일정한 방향을 잡고 가야만 과거에서 현재, 현재를 넘어 미래도 전망할 수 있다. 이 책의 제목만 보면 시기를 구분하고 구획을 짓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논문들이 『한국 사회와 종교학』의 명제 아래 묶일 수 있는 데에는, ‘한국 사회와 종교학’을 연결시킨 역사 즉, 이것을 가능케 한 시간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종서 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이 책의 논문들은 한국 종교학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구성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이 책의 의의는 그 ‘관계’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 주요 저술 부분에 나열된 연구 제목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30여 년 동안의 김종서 교수의 학문적인 고민과 관심이 무엇이었으며 당시 한국 사회와 종교학의 주요 이슈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한국 종교학계의 역사에서 1980년대는 해외 유학파들이 귀국해 서구 종교 이론을 소개하고 한국에 적용하였던 ‘한국 종교학 2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이다. 한국 종교학의 토대를 단단히 하고 내용을 채워갔던 시기였기에 그의 연구와 방법론을 개인적인 연구사로만 볼 수는 없다.

김종서 교수의 연구 방향 및 지향점에 관해서는, 이 책의 (안신) 「종교 사회학과 종교현상학 관점의 가능성과 유용성」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신은 자신의 학문수행 여정에서 김종서 교수로부터 받은 학업내용을 회고하면서, 김종서 교수의 학문적 고민과 방향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다. 논문에 의하면, 김종서 교수의 주요 관심 영역과 종교 연구 방법론은 ‘현대 종교론’, ‘종교사회학’, ‘한국종교연구사’의 순서대로 전개된다. 각 영역에 대해서는 김종서 교수의 저서 『현대 신종교의 이해』(1994), 『종교사회학』(2005), 『서양인의 한국 종교 연구』(2006)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현대 신종교의 이해』를 통해서, 사회학적 이론에 함몰되지 않도록 당시 한국 사회에 일어나던 생생한 사건들을 사회학적 이론에 함몰되지 않고, 종교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

였다. 현대 신종교들로부터 제시되는 참신한 종교개념을 기존의 종교전통들과 잘 조화시켜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종교사회학』에서는 종교학 방법론의 네 가지 원칙, 이론과 실재를 조화시키고, 교구사회학(내지 기독교사회학)을 극복하고, 기존 한국적 종교사회 현상에 관한 연구 업적들을 가능한 한 수렴하고, 사회학적 환원주의를 탈피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현대종교론’과 ‘종교사회학’으로의 김종서 교수의 연구는 ‘한국 종교학’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진다. 김종서 교수는 서구 이론에 의지하고 서구 문헌의 해석과 번역에 치중하고 있던 당시 한국의 종교연구 경향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 과정의 첫 걸음이 서양인(주로 여행가와 선교사 등)이 한국 종교를 기술한 자료를 찾아내고 연구한 『서양인의 한국종교 연구』이다. 이어서 일본인과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 종교 연구사 관련 자료를 찾아내고 정리하는데 힘을 쏟았다. 서구 이론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국 상황에 서구이론을 적용하고 이에 맞는 연구방법을 모색했던 학문 여정이 ‘현대종교론’, ‘종교사회학’, ‘한국종교연구’의 세 기둥이 되었다. 이것이 이 책에 실린 19편 논문들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이론을 한국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여 소화를 할 것인가라는 김종서 교수의 학문적 고민이 이 책의 표제 『한국 사회와 종교학』에 함축되어 있으며, 19편 논문의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론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의의는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 하나는 종교학자 김종서 교수의 30여 년의 학문적 업적과 기여를 기념하는 논문집으로서의 학술적 가치이다. 다른 하나는, 그간 다양한 종교학 이론과 방법론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새로운 방법론을 재창조해 나갔던 한국 종교학의 여정, 즉 ‘한국 종교학’의 정체성을 구축해간 과거와 현재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3. 본문에 대하여

본 서평은 앞서 살펴본 한국 종교학의 정체성 구축과정이라는 화두를 상기하며,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세 범주로 논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에 실린 구성과 순서에 따라 논문들을 소개해도 되겠지만, 다양한 연구가 모인 만큼 분류하는 기준도 여러 방향으로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동일한 콘텍스트인 ‘한국 사회’에 초점을 두고 세 범주, ‘근현대 한국 사회와 종교’, ‘세계 속의 한국 사회와 종교’, ‘한국 사회와 종교학 방법론’으로 나누어 보았다.

3.1. 근현대 한국 사회와 종교

근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종교가 각자의 교리로 반응했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당대의 사회 상황의 변화와 요구에 따른 각 종교의 반응 양상 및 상관성을 설명하였다. 넓은 의미에서는 종교와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종교의 정체성을 구현해나간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서구이론을 넘어 한국적 연구방법을 고안하고 모델화하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잘 보여준다.

(이유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신교의 태도」는 근대화를 상징했던 새마을 운동이 내세운 자조·자립·협동 정신에 대한 개신교의 해석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다룬 사례연구이다. 개신교의 교리와 새마을 운동이 지향한 근대화가 비생산적인 전통 타파[미신타파]의 기초 아래서 연합했던 사례를 다루었다. 사례연구의 특성상 일부 개신교에 한정된 연구이지만,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에 의한 1970년대 개신교 교리와 근대화라는 국가 정책과 연합한 요인을 사례를 들어 잘 설명하였다.

(유요한) 「한국 개신교의 장소 점유 전략」은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요인과 개신교의 종교적 이상과 동기가 결합하여 장소에 대한 관점을 형

성하고 실제적으로 장소를 점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사회상황이 개신교 내부의 교리와 이상, 이에 따른 도덕적 선택에 영향을 미쳐 실제적으로 한국 개신교회가 성스러운 장소를 확보하는 전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논증하였다. 성전 점유 형태를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세 유형으로 제시하고 모델화하였다.

(배덕만) 「‘헬조선’과 ‘개독교’ 시대의 인문주의」는 ‘헬조선’으로 표현되는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과 ‘개독교’로 표현되는 한국 개신교를 향한 사회적 비판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인문주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개독교’ 현상을 중세 말의 타락한 가톨릭의 모습에 대비시키고, 그리스 로마의 인문주의가 개신교의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갔던 종교 개혁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개신교의 상관성을 가감 없이 논하고, 해결방안으로 이전시대의 학문과 종교가 연합하여 이루어낸 것을 재해석하고 한국사회에 적용하였다.

(안환기) 「육망의 문제에 대한 불교의 해석」은 불교의 세계관인 ‘속제’(俗諦)와 ‘진제’(眞諦)의 구조 속에서 ‘육망’의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논증하였다.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키고[출생], 소통하고, 사회화하는 동인 그리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원동력과 보살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동인을 육망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반론이 있겠지만, 한국 불교를 실제적인 삶과 연관시켜 보려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한다.

(임재규) 「유교 윤리에 있어서 선악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주역(周易)』이 점치는 책[술수(術數)]으로만 부각된 점을 지적하고, 본래 선악사상을 강조하는 윤리적인 문헌이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역』의 선악사상이 공자를 통해 유교 윤리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정립되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기존에 한국 사회와 『주역』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한국 사회에서 『주역』이 점치는 책으로 수용되

고 지속되는 원인, 역사, 변화의 양상 등에 대한 연구도 기대해 본다.

(강은애) 「만해 한용운의 종교관과 한국 사회」는 한국 근대 불교 학자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조선불교유신론』(1913)을 근거로,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근대 ‘종교’로 재탄생된 요인이 근대 종교 개념의 유입이라는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린 결과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만해는 당시 개신교가 불교를 철학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미신으로 치부하며 불교의 종교성을 부인했던 것에 맞서는 과정에서, 불교가 근대적 ‘종교’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만해의 저서를 통해, 불교의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만해의 종교관도 고찰함으로써 근대성과 종교개념에 관한 폭넓은 안목을 제시한다.

(허남린) 「기복(起復)과 조선 사회의 유교권력」은 조선시대 유교의 이념, 충(忠)과 효(孝)의 긴장관계를 기복[부모상을 당하여 거상(居喪) 중인 사람을 국왕이 불러 벼슬을 시키며 일을 보게 하는 것을 지칭]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유교적 관념이 정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족지배층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었음을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기복’을 둘러싼 왕과 사대부 간의 긴장관계는 조선시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 저변에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는 ‘효’ 사상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한다.

(전명수) 「노인복지와 종교 기반 실버산업, 종교의 의미에 대한 재성찰」은 개신교, 가톨릭, 불교의 각 종교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의 현황과 변화를 실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교복지’와 종교적 가치의 문제를 다루었다. 실버타운이 고급화된 서비스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과는 다른 가치, 즉 종교적 가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의 문제제기와 함께 각 종교에서 내세우는 가치를 설명하였다.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현 한국 사회와 발맞춘 ‘종교복지’의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한국 사회의 변화와 종교의 상관성을 읽어낼 새로운 연구 대상이며 이에 대한 안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3.2. 세계 속의 한국 사회와 종교

지구촌 시대에 세계 속의 한국 사회와 종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한 연구들이다. 이전시대와는 달리, 타 문화권과 시공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상호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고찰하고, 현재 한국 사회와 종교의 모습을 넘어 앞으로의 양상을 전망하였다. 이 범주로 분류된 아래의 5편의 논문들에 관한 축적된 연구 성과는 많지 않지만, 미래에 관련한 주제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이 참신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연구들이다.

(김재명) 「지구화 시대 ‘종교체계’ 개념의 의미와 한계」는 종교사회학의 최첨단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에 종교 개념에 대한 최근 학자들의 논의의 한계점과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체계 안에 있는 ‘종교’와 그 체계들을 넘나드는 ‘종교’ 개념 모두를 포착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간 종교학계에서 회자되었고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종교’ 개념과 그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구화이론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동양 종교문화권과 현대 새로운 종교 문화의 이해를 위한 안목을 제시한다.

(김용환) 「유불회통의 동아시아민성 함양」은 동아시아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유불회통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동아시아민성은 동아시아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질과 성품을 의미하며, 동아시아민 공동체 토양을 다지면서 다양한 문화교류를 이어 온 한중일과 인도가 구성원이 된다. 백운경한(白雲景閑, 1289-1374)의 『직지무심(直指無心)』과 명재윤증(明齋尹拯, 1629-1714)의 ‘실심무실(實心務實)’의 논리로 회통을 설명하였다. 이것을 개인과 집단을 매개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와 종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21세기 블록경제의 형성에 따라, 동아시아민성을 유럽연합에 상응하는 공동체로서 전망하며 실제적인 경제문제 해결의 대안으로도 제시한다. 유불회통의 논리를 적용하여 현대 지구화시대에 개

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서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과제의 해결방안이라는 새로운 안목을 제시한다.

(윤용복) 「한국 이슬람교 이해하기」는 ‘이슬람국가’(IS)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한국 이슬람의 특징과 미래를 전망하였다. 한국에 유입된 타종교와는 달리, 한국 이슬람교는 한국화 되지 못하고 낯선 종교로 인식되고 있는 원인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이슬람교의 의례와 유교 제사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 무슬림들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이슬람교가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어 정착할지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논문이다. 아직 한국화 되지 못한 이슬람교이지만 한국에 유입되었고 현재 한국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우혜란) 「글로벌 축제로서 할러윈의 발전과정과 일본 및 한국의 사례」는 ‘할러윈’(Halloween)이 본래의 종교적 의미가 희석되고 독특한 성격의 글로벌 축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들어 살펴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할러윈은 ‘한국화’가 되지 않는다고 아이들과 젊은 층의 놀이 문화로 머물러 수용단계에 있지만, 최근 서울시가 주체하는 열린 공적 공간에서 할러윈을 개최하면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진단하였다. 참신한 연구대상과 안목을 제시하였다.

(유광석) 「‘종교 없음’ 인구의 종교성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기존의 종교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종교 없음’(religious nones)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근대 서구의 종교 개념을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의 ‘종교 없음’ 항목으로는 비조직적이고 내재적인 종교성을 분류하고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종교시장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 종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교적 다양성 및 미래의 한국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과제를 ‘종교시장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특히 현대의 새로운 세대의 ‘숨겨

진 종교성'을 찾아내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의 표본의 필요성과 종교 개념에 대한 성찰의 제시하였다.

3.3. 한국 사회와 종교학 방법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슈화된 문제들을 종교학 방법론으로 재해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다. 현대 한국 상황에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샷사 미쓰아키) 「대종교 단군민족주의와 한국 종교 연구」는 현대 지구화와 함께 문화적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그 시원으로 이능화(1869~1943)가 제창한 '조선신교론'(朝鮮神敎論)에 주목하였다. '조선신교론'이 곧 단군신교(檀君神敎)이며, 이능화가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연구의 성격을 당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와 연관하여 분석하고, 그의 종교 관념 형성에 끼친 영향을 논하였다. 종교 관념과 당대의 정치 상황과 상관성을 논증한 사례연구이다.

(김영원) 「종교학 안에서 종교철학하기」는 종교철학이 종교학과 대립 관계가 아니라 종교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고대 철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종교철학과 종교학은 상호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현대 종교철학에 대한 선입견을 재고하여 현대 한국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참신한 연구방법과 안목의 출현 가능성을 제시한다.

(최정화) 「두려운 낯성(Das Unheimliche): 성스러움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저서 『두려운 낯성("Das Unheimliche")』(1919)에서 논의되었던 '두려운 낯성'에 대한 기존의 원시 종교론적 관점을, 루돌프 오토(Rudolf Otto)의 종교론을 통해 확장하고, 이것을 현재 한국 사회의 이슈화된 문제와 연관해서 새롭게 해석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안' 치료가 전적으로 심리학의 영역만

이 아니라, 이것과는 다른 ‘종교적 마음치유’의 영역임을 논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마음 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과 그 해결 방안을 두 고전학자의 이론을 통해서 제안한다.

(성혜영) 「프로이트와 융의 심층심리학과 무의식」은 프로이트와 융(Carl G. Jung)의 심층심리학적 종교이해가 종교 현상과 인간의 종교성을 이해하는 데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종교심리학의 무의식과 종교의 관계를 한국 사회의 종교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연관시켜서 설명하였다. 논자는 개인의 심리 치유[힐링(healing)], 종교체험 연구, 종교지도자와 신도의 관계가 빚어내는 다양한 모습들, 종교인들의 심리 치유 저술, 더 나아가 “인간의 영성”이라는 개념 등을 모두 이와 연관된 실례로 들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마음과 관련한 문제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험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현대 심리학이 포착하지 못하는 인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마음 층위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Sung Uk Lim) 「Exploring Deconstructive Postcolonial Criticism as a Liberating Method」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틀에 대한 대안을 해체주의 비평(deconstructive criticism)과 탈식민주의적 비평(postcolonial criticism)의 고찰을 통해서 제안하였다. 서구 비평의 역사에서 출현했던 접근 방법들을 설명하고, 20세기 말부터 대두한 해체주의와 탈식민주의적 접근방법을 종교학 방법론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종교 개념에서부터 여러 방법론적 적용의 문제들을 논의했던 역사를 성찰하고 현대 종교학적 방법론의 적용방법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다.

4. 서평을 마치며

해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듯 완전히 새롭고 완벽한 이론은 없다. 단지 또 다른 렌즈의 초점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하지 못한 것을 밝히고 재해석해 내는 것이 창조적인 작업일 것이다. 무엇이든 개척자들이 있어야 이들이 남긴 유산이 다음 세대의 디딤돌이 되고, 바통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주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 책을 기점으로 한국 종교학의 과거의 발자취와 현재의 모습까지 만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다룬 다양한 키워드, ‘한국 사회’, ‘동아시아’, ‘지구촌 시대’, ‘근대성’, ‘종교 개념’, ‘종교 윤리’, ‘종교 치유’, ‘개독교’, ‘헬러윈’, ‘종교 철학’, ‘종교 복지’, ‘내셔널리즘’, ‘포스트모더니즘’ 등은 2018년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앞으로 ‘유사 종교 문화권’, ‘한류’, ‘한국학의 부상’, ‘다문화 가정의 증가’, ‘인지 종교학’, ‘인공지능’ 등 어떤 잠재된 키워드와 창조적인 관점이 ‘한국 사회와 종교학’의 명제를 채워나갈지 상상해본다. 잠시 물을 베었던 칼을 걷어내고 다시 아래로 흘러보낼 때이다.

